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0년 12월 31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배만호 | 편집인 김중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nwho@naver.com)

학사 일정

12.13(월)~17(금)	기말고사
12.20(월)~11.1.20(목)	2011학년도 1학기 교수계획표 입력
2010.12.31(금)	종무식
2011.1.3(월)	사무식
1.6(목)	2011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 전형
2.9(수)	2011학년도 편입학 면접고사 전형
2.1(화)~11(금)	1학기 재학생,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2.18(금)	201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인문대학 교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반대 성명서

최근 우리 인문대학 교수 일동은 세 차례에 걸쳐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교과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국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국립대 선진화 추진단'에서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거점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둘째, 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및 총장 임명제 전환, 셋째, 교원 보수를 호봉제에서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 넷째, 전국 교대 총장 간선제 도입 및 후보자 대내외 개방, 다섯째, 경영정보 공시제 도입, 여섯째,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 양성기관 적정 규모화 및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10월 12일 행정안전부는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관련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세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자세히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필두로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는 계획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81명 전원은 10월 25일 단과대학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강력한 반대외사를 밝히고, 해당 정부 부서에 우리의 결연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국립대 단과대학 학장을 총장이 지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빼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화 과정에서 얻은 산물로 총장 임명제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제도임에도 당사자인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에 인문대학 교수 80명은 12월 6일 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또다시 '성과연봉제 조정안'을 발표하고 재입법예고(기간 12.9~12.14)를 알려왔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10월에 입법예고한 것과 별반 차이점이 없다. 조정안은 성과연봉제의 격차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등급 비율에 ±5%를 도입하고 시행시기만 약간 늦추었을 뿐이다. 더욱이 조정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사실상 당초 교과부에서 입안한 1차안과 동일한 것이다. 교과부는 교수들 간의 상호 불신과 대립,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성과급적 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커녕 이미 결론을 내린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에 인문대학 교수 81명 전원은 3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Contents

정호권 동문 (영문 80), 인문대학 발전기금 1억원 쾌척



정호권 재중국한인회 회장은 11월 30일 모교 발전을 위해 인문대학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하였다. 정 동문은 이미 지난 6월 인문대학 교수들의 칭다오해외문화탐방 기간 중에 인문대학 발전기금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 칭다오리커 의료기계, 칭다오자산건재, 칭다오효성일화 등을 운영(대표이사)하고 있는 정회장은 중국 브랜드 창출 10대 기업인으로 선정된 바 있고, 칭다오시 인민정부의 금도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장쩌민 전 주석이 제정하고 중국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인민공복(人民公僕)' 칭호를 외국으로서는 최초로 받았다.

정호권 동문은 경남 마산고를 졸업하고 1980년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여 86년 졸업했으며, 졸업 후 대우, 대한생명보험에서 근무했다. 정 회장이 2002년 11월 세운 칭다오리커는 현재 중국에 1,500여개의 대리점을 갖고 있는 등,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런 부산대인'에 선정된 바 있고, 2008년 12월에 임기 2년의 제5대 재중국한인회 회장에 당선된 정 회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 팡형 홀리데이 호텔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단독 출마하여 제6대 회장으로 재선되었다(임기: 2011.1~2012.12.31). 이로써 정호권 회장은 재중국한인회 사상 첫 연임 회장이 되었다. 재중국한인회는 중국의 53개 지역에 진출한 한국인 80만 명을 대표하고 있다.

201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 전형실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201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전형이 실시되었다. 전형은 고교생활우수자(교과우수인재, 창의적 인재, 주도적 인재), 사회적 배려·농어촌·저소득층학생, 특수교육대상자, Premier-PNU의 4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지원자는 고교생활우수자 1,455명, 사회적 배려·농어촌·저소득층학생 144명, 특수교육대상자 16명, Premier-PNU 191명 등 총 1,806명이었다. 이 가운데 주도적 인재, 사회적 배려·농어촌·저소득층학생, 특수교육대상자, Premier-PNU 지원자가 면접대상이었고, 면접전형은 같은 기간에 학

과별로 실시되었다. 합격자 사정은 12월 10일에 있었으며 고교생활우수자 189명, 사회적 배려·농어촌·저소득층 학생 32명, 특수교육대상자 4명, Premier-PNU 17명이 합격하였다. 그 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이 11월 20일에 실시되어 지원자 68명 중 15명이 합격하였다.

학과별 취업 특강

인문대의 12개 전 학과에서는 학과별 일정에 따라 멘토링 기간을 정하여 취업특강을 실시하였다. 각과에서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학과의 동문선배들을 초청하여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과 안내를 받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후배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마련했다.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인 동문선배들은 직종별 취업을 위해서 취업준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과 취업 후의 생활에 대해 소개하고 후배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눈앞의 취업에 조금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인생을 걸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자신의 길을 먼저 결정한 후 차근차근 준비해 가기를 권고했다. 인문학분야의 취업문이 좁아진 요즘, 이번 특강을 계기로 전공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배의 실제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재학생들은 새로운 취업의 가능성을 개척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연 후에는 교수진, 학생 및 동문들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진행함으로써 동문간의 결속을 다짐과 아울러 그와 연계된 학과의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교수휴게실 오픈



지난 10월 18일 인문대학 교수연구동 208호실에 교수휴게실을 공식 오픈하였다. 에스프레소 기계와 동전교환기, 정수기 등을 새로 설치하였고, 탁자와 의자, 일간신문 2종을 비치하였다. 인문대학 교수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연중무휴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광기의 예술가들’에 대한 단상

박형섭

이번 학기 <프랑스 예술과 광기>란 교양수업을 하면서 광기와 고독으로 살다간 천재적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 죽음을 살펴보았다. 천재들의 예술적 영감은 광기에서 나오는 듯하다. 장 자크 루소, 샤를 보들레르, 아르튀르 랭보, 앙토냉 아르토, 장 주네 등, 그들의 뜨겁고 처절하며 불꽃같은 삶은 연구의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드라마틱한 기행이 고뇌와 번덕을 지닌 심리상태로써 공통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체제보다 반체제, 인습보다 탈속, 안주보다 방랑의 자유로움을 택한 고독한 아웃사이더였다는 사실!

계몽사상가로 잘 알려진 루소는 방랑생활을 통해 민중의 삶, 애환을 직접 체험한 바 있다. 그는 “엄마의 목숨과 맞바꾼 나의 출생은 불행의 시작” 이라고 말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끊임없이 자신은 물론 시대와 불화하며 떠돌아다녔다. 그는 18세기 빛의 시대 한가운데서 아득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을 보며 글쓰기에 몰두했다. 그의 <에밀>은 근대 교육학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진실은 책이 아니라 자연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고아원에 버렸다. 그는 모든 것은 조물주의 손에서 떠날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타락한다고도 말했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이성과 양심을 통해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이신론을 펼쳤다. 당시 모든 혁명가들은 루소에게 귀를 기울였다.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인 보들레르, 랭보, 베를렌은 주옥같은 언어로 동시대를 노래했지만 저주받은 자들로 낙인찍혔다. 그들의 삶이 술과 반항과 동성애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다. <악의 꽃>의 보들레르는 “파리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내 우울 속에서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술에 취해도 타락의 길을 재촉해도 때로 신성모독에 이르러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죽음만이 고통스러운 여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믿고 자살을 시도했다. 죽음은 시인에게 해방과 안식을 의미했다. 그는 저승에서의 영혼의 소생을 시를 통해 암시했을 뿐이다. 반항의 시인 랭보는 베를렌과의 동성애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의 <영원>이라는 시의 한 구절은 이렇다. “나는 보았다. 무엇일까? 영원을. 그것은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그는 너무 일찍 조숙했고 19세에 절필했다. 그는 근대적 프랑스 사회의 허위와 전통, 그리고 모든 권위에 대해 반항했다. 언어가 지니는 표현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고 하는 랭보의 시와 시론은 데카당주의나 초현실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와 베를렌의 삶을 다룬 영화 <토탈 이클립스>(아니에츠카 홀란드 감독)는 뛰어난 시적 영상미로 유명하다.

잔혹극의 창시자인 아르토는 랭보가 시를 통해 삶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연극을 통해 삶의 변화를 시도했다. 무대언어를 고향과 물질언어로 대체함으로써 말이다. 그의 연극에 대한 계획은 시적인 모험을 절정으로 이끌고 가는 정신적 탐색과정이다. 아르토에게 삶, 연극, 잔혹성은 불가분의 관계다. 결코 누워서 죽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아르토는 정신병원 침상에서 앉아서 죽었다. 예술품 탄생의 비밀은 창조자 개인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잔혹극은 잔혹한 아르토의 삶에서 잉태한 것이다. 배반과 절도와 동성애의 기록 <도둑일기>의 작가인 주네는 악의 토양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신화를 남겼다. 그는 ‘나는 흠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의 살아 있는 표상이다. 그에게 죄수와 감옥은 미의 대상이다. 그는 불법과 반도덕이 아름다움으로 통하는 구역에서 역설의 삶을 살았다. 사생아로 태어나 자신을 버린 사회, 악과 부조리의 세계를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뜻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작품이다! 다만 그것이 예술 혹은 미학적 평가의 대상인가가 문제다. 예술가들의 문제적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다. 그것은 그들의 정신적 물적 근거로써 창작이라는 형태의 소유주로 응집되어 있다. 즉 삶과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 상호 텍스트적이다. 여기서 예술은 그림이나 문자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허공에 외치는 고향이나 절규, 호흡하는 행위조차 우주 공간 속에 몸으로 쓴 상형문자로 인식된다. 예술가는 자신이 창조한 작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을 물질화한다. 매우 고통스럽게 때로는 매우 환상적으로, 따라서 작품을 읽거나 바라보는 독자와 관객은 그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어쩌면 영웅호걸보다 아웃사이더의 삶이 더 위대할지 모른다. 권력은 한 시대를 장식할 뿐이며, 재력은 한 세기를 지키기 어렵다. 하지만 광기의 예술가들은 거의 불멸의 삶을 산다. 광기는 천재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다. 천재성은 광기 안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광기는 한계체험까지 자신을 몰아갔던 내적인 총동의 다른 말이다. 그러한 광기가 없었다면 천재적 예술가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높은 뜻을 품은 청년 학생들이며, 진정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들의 삶을 엿바라.



필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프랑스회교 전공

국어국문학과



2010년 10월 9일(토), 부산대학교가 주최하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가 주관한 전국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이 열렸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 행사에는 총 186개교 1,01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미래 문사(文士)의 자질을 겨루었다. 이번 백일장의 글제는 “이끼(운문)”와 “소문(산문)”이었고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20명을 수상했는데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유란 학생이 장원으로 뽑혔다. 11월 13일(토)에는 국어국문학과 학술제를 개최했으며 국어국문학과 소속 학회인 고전문학연구회, 귀성문학회, 배달말 연구회가 각각 논문을 발표했다. 고전문학연구회는 「추노 서사문학의 양반편향적 성격」, 배달말 연구회는 「구어체 종결법의 실현 양상」, 귀성문학회는 「타자를 그린 한국 문학의 모습과 한계」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중어중문학과



부산대 종합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는 “2010년 진로탐색을 위한 기업탐방 지원 사업”에 중문과가 선정되어 9월 12일(일) 중문과 1기 졸업생 임철휘 부장이 재직하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였다. 교수님을 포함하여 약 30명의 학부생들이 현장교육을 통한 다양한 현장학습을 체험하고 앞으로의 학업에 더 나은 동기부여를 받았다. 10월에는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에서 지원하는 “학과/대학단위 학생파견사업”에 중문과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모두 선정되어 이번 겨울방학과 내년에 중문과 학생 및 중문과 부전공, 복수전공 학생들을 북경외국어대학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가 주최한 “2010학년도 2학기 JPT 공인 특별시험”이 10월 30일(토) 오전 10~12시 인문관 206호에서 실시되었다. 시험결과에 따라 JPT 정기시험과 동일한 공인성적표단, 재발급 없음)가 발급된다. 11월 19일(금)~20일(토) 양일간 상남국제회관 효원홀에서는 19일의 학술대회를 필두로 한 일어일문학과 학과개설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많은 선배동문들이 자리한 가운데 재학생들의 기념공연도 마련되었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BK21 영상산업번역 전문인력양성사업단」에서는 11월 1일(월)과 11월 12일(금), 두 차례(7, 8회)의 번역학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7회에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김미라 교수가 「텍스트 분석과 번역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

고, 8회에는 경남대학교의 김정우 교수가 「한국어 표현의 맛과 멋-번역투의 전향적 극복을 위하여」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11월 6일(토)에는 학과 금정산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22일(월)에는 동학과의 민중가요 동아리인 ‘새벽소리’가 10.16 기념관에서 연례정기공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불어불문학과



11월 27일(토) 오후 7시 인문관 시습관에서 “La nuit étoilée”라는 타이틀로 2010년도 불문인의 밤이 열렸다. 졸업생들을 위시한 50명가량의 불문인들이 모여 후배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2월 6일(월) 오후 4시 효원산학협동관 102호에서는 불어불문학과에서 주최한 초청특강이 열렸는데, 연세대학교의 김진우 석좌교수가 「언어와 인문학」에 대해 강연하였다.

독어독문학과

대외교류본부에서 주관하는 학생해외파견 사업에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독어독문학과는 2011학년도 1학기 사업에도 선정되어 독일 하노버 대학으로 파견 보낼 10명의 학생들(김태호 외 9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11월 6일(토)에는 독일 교환학생들(Maria Grusdt, Stephanie Bernstein)을 위한 멘토링 문화답사를 실시하였다. 교수 3명(허영재, 인성기, Frau Hänel), 시간강사 2명(황미은, Herr Schneider)과 함께 교환학생들은 학교에서 밀양 표충사로 이동하여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였다. 11월 13일(토)에는 학과 체육대회(본교 신축운동장) 및 ‘독문인의 밤’ (오마이 랜드) 행사가 있었으며, 12월 17일(금) 인문관 시습관에서는 독일식 크리스마스 파티인 바이나흐츠페스트(Weihnachtsfest)가 열려 독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에서는 11월 26일(금) 효원산학협동관 대강당 101호에서 러시아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부산대학교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러시아 총영사의 특별 강연과 노어노문학과 학생들의 러시아 전통 춤 공연, 이어서 좋은강안병원 서우영 박사를 비롯한 발표자들의 강연이 있었다.

한문학과

한문학과는 매년 가을 전국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학술답사를 개최하였는데, 올가을에는 11월 2일(화)~11월 4일(목)에 걸쳐 충청도 일대의 유적지를 두루 돌며 우수한 백제문화유산의 여운을 느끼고 돌아왔다. 이번 답사의 주제를 “자연속의 사색과 여유, 休”로 정하고, 떠나기에



앞서 11월 1일(월)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대상지역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답사 기간 중에는 학년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교생활, 진로, 교우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언어정보학과



10월 27일(수)~29일(금),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열린 인문대 축제(금정제)의 체전에 참가한 언어정보학과는 여자 발야구에서 우승을 했고, 가요제에 참가한 10학년 최성우와 최형록은 금정제 대상과 10월제 인기상을 수상했다. 한편, 김형진(04학번, 4학년), 박정훈(05학번, 4학년), 심현식(05학번, 3학년) 3명은 단기 프로젝트를 결성한 후 "2012 Dream Expo 여수세계박람회"에서 개최하는 "아이디어 마켓 공모전"에 참가하여 「한국 여자축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1등에 입상했다.

사학과



사학과에서는 학생회 학술 심포지엄과 학년별 답사를 개최하였다. 1학년은 10월 29일(금)~30일(토)에 경주 일원, 2학년은 11월 6일(토)에 창녕·김해로 현장학습을 떠났으며, 3학년은 11월 13일(토)~14일(일) 통영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11월 26일(금)에는 풀빛순례와 그노시스가 준비한 학회활동 성과물을 발표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고, 12월 3일(금)에는 졸업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철학과



부산대와 경성대, 신라대 철학과는 합동으로 9월 17일(금), 부산대학교의 넉넉한 터에서 제1회 부산지역철학과연합 가족체전을 마련했다. 10월 1일(금)에 있었던 2010학년도 2학기 대학원 연구논문 발표회에서는 5명의 박사과정생들이 발표를 하였으며, 10월 2(토)~3(일) 양일간에는 학생들이 전라남도 순천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한편 2010년 제 4~6회까지의 콜로키움(9/29, 10/15, 12/2)에서는 각각 「날개 달린 거북」(부산대 임형석), 「공간, 이데올로기, 그리고 도시의 정치학-앙리 르페브르의 철학을 소개하며」(프랑스 서부 가톨릭대 프레드 포셰[Fred Poché]),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전남대 심해련)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11월 19일(금) 효원문화회관 6층 경향당에서는 부산대, 전남대, 경성대, 신라대 등이 참가한 제1회 부마민주항쟁 학생세미나가 열렸다.

고고학과



11월 30일(화)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고고학과와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중국연구소가 후원하는 해외저명학자 초청 강연이 있었다. 북경대학교 齊東方(제동방) 교수가 「조조 묘와 삼국시대 묘제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길림대학교 王立新(왕림신) 교수는 「秦 통일 이전의 내몽고 중남부지역의 문화다원화와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는 점필재연구소, 인문한국(HK)[고전번역+비교문화학 연구단]과 합동으로 여러 차례의 연례 학술발표회와 학술심포지엄, 인문학담론모임, 콜로키움의 장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인문학담론모임은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에서 매달 꾸준히 열렸으며, 10월(17차)과 12월(18차)에 열린 학술발표회는 '문화횡단'과 '소통'을 주제로 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10월과 11월에 각각 두 차례씩 개최된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철학과 고전을 연계하면서 프랑스 서부 가톨릭 대학의 포셰(Fred Poché) 박사를 비롯한 국내외 학자들에게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특히 인문한국(HK)[고전번역+비교문화학연구단]과 함께 한 <연보와 평전 집중콜로키움>은 정순왕후, 임윤지당, 신소당 평전이라는 세 차례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밀양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언어, 언어학의 지평 넓히기>가 다섯 차례(제16회~20회)에 걸쳐 여러 주제로 발표되었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한국문화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3일(토) 인문대학 시습관에서 2010년도 한국문화회 추계 전국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술국치 100년을 넘어서-문학 담론의 동아시아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16명의 발표자와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동 연구소 HK 연구단에서는 10월 22일(금) 상남국제회관에서 강원대학교 HK인문치료사업단, 건국대학교 HK통일인문학연구단, 부산대학교 인문한국 연구단, 대동철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인문학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010년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는 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의 <연보와 평전 집중콜로키움>을 마련하는 한편, 11월 5일(금)에는 한국고전번역학회와 함께 「고전번역의 문체와 전략」이라는 주제의 공동학술대회를 밀양캠퍼스 중강당에서 개최하였다. 10월 9일(토)에는 밀양 표충사 우화루에서 「표충사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추모 학술대회」를 열었고, 10월 21일(목)에는 신불산으로 연구소 가을 등반대회를 다녀왔다.

동문회 조직 (2010.1.1 ~ 2011.12.31)

동문회장

홍성복 (철학 76)

동문회 고문

박태권(국문 48), 박근우(영문 52), 손선익(사학 53),
조현규(영문 54), 진문희(국문 56), 박홍길(국문 58),
김승동(철학 59), 강소근(철학 67)

수석 부회장

권태하(국문 77), 황영순(영문 80)

당연직 부회장

한익훈(사학 64), 이현홍(국문 70), 박만준(철학 70),
배만호 (영문 74), 주환수(독문 79), 이무진(일문 82),
장형기(중문 83), 고창현(불문 84), 양은경(고고 89),
배부기(한문 90), 박동근(언어 94), 조영은(노문 95)

선임 부회장

윤병태(국문 66), 안상길(국문 76), 김기섭(사학 76),
유수근(영문 78), 손성용(독문 78), 조한제(영문 79),
전광호(불문 79), 배정우(철학 79), 박용환(불문 80),
주환명(영문 81), 남경우(독문 81), 남덕현(중문 82),
강영훈(일문 82), 조인실(일문 82), 김쌍우(국문 83),
강상욱(사학 83), 이성권(철학 88)

동문회 감사

김필순(국문 66), 손영삼(철학 78)

자문위원

박동춘(사학 46), 안동환(영문 68), 공옥식(국문 74)

당연직 이사

박미숙(독문 79), 이진광(독문 79), 한태문(국문 81),
장광진(영문 81), 이종봉(사학 81), 이찬엽(중문 83),
노의석(불문 85), 김민정(일문 90), 강대호(고고 90),
김창준(철학 91), 임영선(노문 95)

사무국장

김아가다 (국문 76)

사무차장

박형준(사학 84), 노의석(불문 85)

2010년 인문대학 동문회 이사회 개최

인문대학 동문회 이사회가 12월 9일(목) 서면 시험에서 30여명의 동문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송년회 모임 형식으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홍성복 회장(철학 76)과 황영순 수석 부회장(영문 80)을 비롯한 전임 회장과 각 학과의 동문회장인 당연직 부회장들이 참석하여 동문회 조직의 활성화와 향후 2011년에 가질 행사 및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랑스러운 동문



인문대 동문으로서 인기 드라마 《야인 시대》에서 미우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던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이재용(철학 82학번) 동문을 이번호 '자랑스런 동문'으로 소개한다. 이 동문은 강렬한 마스크

와 개성을 지닌 배우로서, 《주몽》의 부득불을 비롯해 영화 및 드라마 《친구》, 《야인 시대》, 《제 5공화국》, 《성균관 스캔들》등 사극과 현대극에서 두루 주인공의 대척점에 서는 소름끼치는 악역으로 대중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재용 동문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경남 마산 중앙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82학번으로 입학, <극예술 연구회>에 가입하여 연극반 활동을 한 이후 줄곧 부산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였다. 1997년 박경택 감독의 영화 《역수탕》으로 데뷔한 이래 《친구》(2001)와 《지구를 지켜라》(2003), 《도마뱀》(2006), 《땀방》(2007), SBS의 《피아노》(2002)와 《야인 시대》(2003), KBS의 《달려라 울암파》(2003), 《해신》(2005), MBC의 《제 5공화국》(2005), 《주몽》(2007), 《이산》(2008), 《동이》(2010) 등 출연작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사극과 현대물을 막론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분출하는 연기파 배우로 개성적인 연기를 펼쳤으며, 현재는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대물》에서 하도애(권상우)가 근무하는 검찰청의 청장 '공성조' 역을 맡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지방대학으로는 최초로 개설된 대구과학대학의 방송연예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초 연기'와 '중급 연기'를 맡아 강의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잘 그리기로 소문이 자자했다는 그는 국제 심포지엄 등에 초청받는 퍼포먼스 작가이기도 하다. 감독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악역 전문 연기자로 선 굵고 강한 캐릭터를 도맡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인간미가 돋보이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배우가 바로 이재용 동문이다.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국외파견

안동환(영어영문학과)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1년(2010.3.1~2011.2.28)

김준수(철학과) | 미국 시카고대학, 1년(2010.8.15~2011.8.14)

이재봉(국어국문학과) | 일본 國際日本文化研究센터,
1년(2011.2.10~2012.2.9)

연구년 A

강명관(한문학과) | 부산, 1년(2010.3.1~2011.2.28)

박정심(철학과) | 부산, 1년(2010.3.1~2011.2.28)

오경환(일어일문학과) | 일본 國際日本文化研究 센터,
11개월(2010.4.1~2011.2.28)

윤일환(영어영문학과) | 미국 하버드 엔칭 연구소,
11개월(2010.8.1~2011.6.30)

연구년 B

이중봉(사학과) | 부산, 1년(2010.3.1~2011.2.28)

전광호(불어불문학과) | 한국, 프랑스, 1년(2010.9.1~2011.8.31)

김기섭(사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김동철(사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이영철(철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박선자(국어국문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교수동정 단신

| **한태문** 교수(국어국문학과)는 2010년 12월 15일(수)~16일(목) 대외교류본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0학년도 2학기 일본 규슈대학과의 공동강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규슈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

| **김혜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2010년 12월 16일(목)~19일(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대회명: "홍콩 : 도시 상상과 문화 기억")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관련 협의를 하였다.

| **김세환** 교수와 **짜핑치우** 교수(중어중문학과)는 2010년 10월 15일(금)~20일(수) 중국 천진에서 열린 중국당대문학 국제학술연대회에 초청받아 논문을 발표하였다.

| **남덕현** 교수(중어중문학과)는 2010년 10월 16일(토)~19일(화)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최고전문가과정 제5기 2학기 국외연수참가자들을 중국 상해로 인솔하여 한·중 국제 협력 및 경제·문화 탐방을 실시하였다.

| **김임숙** 교수(일어일문학과)는 2010년 10월 27일(수)~28일(목) 대외교류본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0학년도 2학기 일본 규슈대학과의 공동강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규슈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

| **조강희** 교수(일어일문학과)는 2010년 10월 20일(수)~21일(목) 대외교류본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0학년도 2학기 일본 규슈대학과의 공동강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규슈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

| **배만호** 교수(영어영문학과)는 지난 10월 28일(목)~29일(금)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11/12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강명관** 교수(한문학과)는 지난 10월 27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수여하는 '간행물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지난 6월 발간된 그의 저작 『조선풍속사 1~3』(푸른역사)로 수상하게 되었다.

| **권순복** 교수(언어정보학과)는 제17회 한국어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권연진** 교수(언어정보학과)는 2010년 11월 1일자로 부산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이수훈** 교수(사학과)는 12월 9일 부산대학교 '2010 우수강의 교수상(Best Teaching Professor Award)'을 수상했다.

| **최덕경** 교수(사학과)는 2010년 10월 22일(금)~26일(화) 중국 남경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농업문화유산보호포럼" 학술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한국의 농업 문화유산과 그 실정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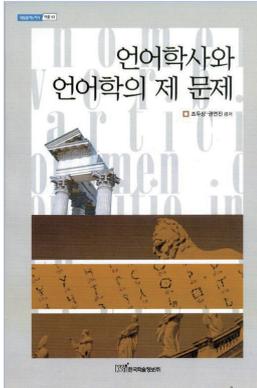
| **박정심** 교수(철학과)는 2010년 11월 25일(목)~30일(화) 중국 사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아 논문을 발표하였다.

| **최우원** 교수(철학과)는 2010년 10월 18일(월)~23일(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대회명: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for the future")에 초청받아 논문을 발표하고 돌아왔다.

| **양은경** 교수(고고학과)는 2010년 12월 21일(화)~25일(토)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2010년도 황룡사 복원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불교사원지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위해 일본 오사카와 나라를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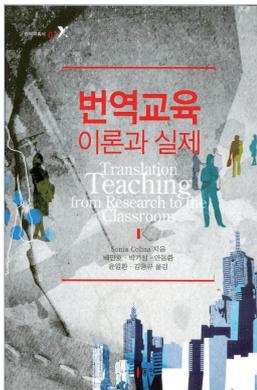


신간소개



『언어학사와 언어학의 제 문제』 조두상 명예교수와 권연진 교수(언어정보학과)는 『언어학사와 언어학의 제 문제』 (한국학술정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일반 언어학사를 다룬 제1부와 언어학의 여러 문제를 다룬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그리스, 로마 및 중세의 언어학, 르네상스 시대와 18, 19세기의 언어학, 20세기의 구조주의, 소쉬르, 프라그 학파, 촘스키

의 변형생성문법 등을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영어철자의 형성 과정, 여성 단어 퇴화현상, 영어 동사 변화, 훈민정음, 상호명과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 정리하고 있다.



『번역교육, 이론과 실제』 배만호 교수(영어영문학과)는 박기성, 안동환, 윤일환, 김용규 교수와 공동으로 Sonia Colina의 『번역교육, 이론과 실제』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의사소통적 활동으로서의 번역에 초점을 맞춘 번역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번역 교수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 책은 응용 연구 분야, 이를테면 교수법과 교사 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교사훈련 자료 및 교사 설계형 수업을 위한 새로운 교수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방법론적, 교육학적인 입장이 번역과 번역 능력에 대한 현재의 이론적, 경험적 증거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영시의 향기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 by Robert Frost

Whose woods ther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